

보도일시 (인터넷) 2024. 3. 21.(목) 14:00,
(지면) 2024. 3. 22.(금) 조간

배포 2024. 3. 21.(목) 10:00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 3월 21일 해수부 차관 주재로 사태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물류 현황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1일(목)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 해수부(차관 주재), 산업부, 중기부, 한국해운협회, HMM 등 관련 국적선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국내·외 주요 선사들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 운항을 시작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2월부터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화물 선적공간이 부족한 북유럽 노선에 1만 1천 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을, 지중해노선에 4천~6천 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고, 12월 중순부터 선박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총 4천 5백 TEU 이상의 전용 선적공간을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출 바우처를 통한 물류비 지원 한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우회 운항이 약 3달째 지속되는 상황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수출입 물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사태 장기화에도 차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홍해 운항 중단이 약 3달간 지속되면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라며, “해상운임 등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임지현 (044-200-5710)
	해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호택 (044-200-5725)

◆ 사례 1: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지원

○ 과일음료를 수출하는 국내 A사는 올해 2월 초 국적선사 HMM에 예약을 진행했으나, 일반 예약보다 HMM에서 지원하는 중소화주 전용선복 사업의 장기 운송계약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조건이라는 판단에 지원 사업을 신청함. 이를 통해 A사는 기존 대비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수출하게 됨

◆ 사례 2: 항로 우회로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는 선박의 증서 기한 연장

○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 B사는 홍해 우회로 인해 약 10일 이상의 운항 일수가 증가하여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해 운항이 금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전달받은 해수부에서 홍해 우회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 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여 우리 선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

◆ 사례 3: 국적선원의 안전을 위해 우회 운항을 권고하고 운항 안전 지원

○ 해수부는 국적선사에게 홍해 우회를 권고하고 우리 선원의 안전을 위해 청해부대와 함께 운항 선박에 대해 24시간 위치추적과 유선 안전 확인을 지속해왔음. 현재까지 우리 선박에 직접적 위협이 가해진 사례는 0건임